'현실'의 범주 확대하는 기발한 상상력

줄리안 반즈 지음 「10½장으로 쓴 세계역사」

"개성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작가 줄리안 반즈의 5번째 작품집. 소설이라기보다는 꾸며낸 이야기, 에세이를 모아 놓았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모두 여행이라는 모티프와 관련이 깊다. 젊은 여자가 핵전쟁으로 초토화된 육지를 떠나 뗏목을 타고 바다로 떠나거나, 영화배우가 베네주엘라에 있는 강을 따라 불운했던 한 선교사의 행적을 뒤쫓는다. 또 우주비행사가 우주공간에서 신을 만난 후 지구로 돌아와 노아의 방주 유물을 발견한다는 등등. 다분히 아르헨티나의 작가 보르헤스를 연상케 하는 기발한 상상력이 '현실'의 범위를 무한히 확대해나간다."

이는 본지 90년 1월 5일자 "세계의 출판"란에 실렸던 「10 1/2장으로 쓴 세계역사」에 대한 소개내용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움베르토 에코의 「푸코의 추」, 샐먼 루시디의 「악마의 시」 등과 더불어 89년 미국 최우수도서 중의 한 권으로 평가된 책이다.

줄리안 반즈(1946~)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작가. 따라서 널리 알려진 작가와 비교하자면 우선 해박한 지식을 자유분방하게 작품속에 구사한다는 점에서 움베르토 에코와 함께 거론된다. 그리고 현 영국 소설계에서 40대 기수들로 형성된 '매직 리얼리즘'을 주도하는 그룹의 한 멤버라는 점에서 남미의 마르께스나 보르헤스에 비견된다. 또 제임스 조이스 이후 영국소설의 자존심을 되찾는 작가군의 하나라는 점에서 샐먼 루시디 등과 더불어 거명된다.

그 줄리안 반즈의 「10 1/2장으로 쓴 세계역사」는 노아의 방주에 탄 밀항자가 방주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제1장을 시작으로 노아가 반드시 좋은 사람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면서 10과 1/2장(삽입장)에 기상천외한 인류의 역사를 흥미롭게 재구성한다. 세계역사는 10척의 배와 1/2척의 통제탑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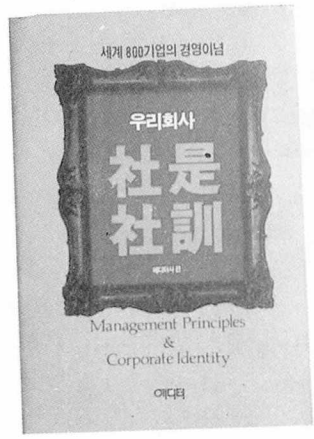
성서에 대한 패러디를 비롯하여, 기묘한 종교재판의 기록, 노이로제 환자의 의식의 흐름과 독백, 서간체 형식의 다큐멘터리, 실제의 그림에 대한 예술사적 에세이, 환타지 등 다양한 형식과 스타일을 거침없이 혼합하여 소설의 또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책은 또한 신생출판사인 '동연'의 첫번째 출간작품이며, 역자 신재실(인하대 영문과) 교수는 원서에 없는 상세한 주석을 달았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화제적'이다.

동연 / A5신 / 400면 / 6500원

국내외 8백여 유명회사의 경영이념

에디터刊 「우리 회사 社是 社訓」



한 가정은 家訓을, 한 나라는 國是를 두듯이 대개의 기업은 경영이념인 사시·사훈을 두고 회사경영의 나침반으로 삼는다. 사시와 사훈의 필요성은 기업의 존재 이유와 근본 경영이념을 분명히 한다는 데서 찾아진다.

도서출판 에디터社가 펴낸 「우리 회사 社是·社訓」은 국내 5백개 기업을 포함, 세계 8백개社의 경영이념인 사시·사훈을 모은 책으로 우리 기업들이 국제환경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자료집으로 평가된다.

이 책에 의하면, 기업경영술이 조직적으로 발달한 서구 및 일본에서는 회사를 차리면 가장 먼저 노사양측이 성실히 준수할 수 있을 만한 크레도(credo : 신조) 또는 기업사명서(Corporate Mission 또는 Mission Statement) 등 이른바 기업이념을 집약한 사시·사훈을 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우리 기업은 진정한 경영이념을 집약한 기업사명서라기보다는 일종의 "슬로건" "훈계"의 냄새가 짙은 구령조의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책에 수록된 국내 5백개 기업 중 140개 회사는 "인화·화합·단결·융화" 등을 주장하며, 104개 기업이 "창의성"을 강조한다. 외국 유명기업들이 개인의 존중 및 회사·주주·사원의 이익을 철저히 강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자연과 이웃과의 관계 등에 대해 소상히 적시하는 것과 대비되고 있다.

예컨대 존슨 앤드 존슨社의 社是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 보다 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최전면에 앞세우고 사원의 자유로운 발언권도 명시한다. 실제로 80년대초 미국에서 발생한 유명한 '타이레놀 부작용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회사는 사시·사훈이 가르치는 대로 모든 피해에 대해 솔직하고 빠르게 시인하고 배상함으로써 당시 「워싱턴 포스트」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한다.

이 책은 따라서 회사를 차리려는 사람, 경영하는 사람, 관리책임자 들에게 명문화된 사시·사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러준다. 또한 모든 기업의 로고마크를 수록, 기업의 C·I(Corporate Identity)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광고제작자, 마크 디자이너, 카피라이터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판사측은 이 책의 출간의의에 대해 "국제화시대에 적응하려면 우리 기업의 사시·사훈의 제정과 재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머리말에 적어 놓았다.

에디터 / A5신 / 400면 / 20000원

●위대한 東洋精神을 배우는 책! 창 조 사 주문전화 : 02-738-0393 서울·종로구 신문로 2 가20-1

그 방대한 原典에서 뽑은 3,000이 넘는 名言·名句

● 누구나 알기 쉽게 한글로 풀이했다.

諸子百家의名言

禹玄民 編

각권·A5 판·384 면
■ 값 8,000 원
■ 값 7,000 원

四書五經의名言

老·莊·列子·墨子·荀子·管子·韓非·孫子·淮南·六韜 등

論語·孟子·大學·中庸·詩經·書經·周易·禮記·春秋 등에서

믿음직스러운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미덥지 않다.
信言不美 美言不信
〈老 子〉

오늘의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東洋精神을 너무 모르고 東洋思想을 아주 잃어버린듯이 사는 사람이 많다. 이 책은 西紀로 치면, 예수가 태어나기 4,5백년 전인, 중국의 春秋·戰國시대를 꽃피웠던 老子·孔子를 비롯한 위대한 思想家들이 지어낸 수많은 原典에서, 그 알맹이라 할 수 있는 名言·名句만을 뽑은 것이다. 그 내용에는 西洋을 뛰어넘은 것이 얼마든지 있다. 東洋을 배우려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익히도록 한글로 재미있게 풀이했다.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孔 子〉

아이들의 즐거운 글쓰기 위한 길잡이책

지식산업사刊 '이오덕의 글쓰기 교실' 전5권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과 우리말 살리기 운동, 그리고 어린이 문학에 전념해온 이오덕씨의 "우리 어린이들이 글쓰기를 즐거이 하는 길잡이 책" 다섯권이 지식산업사에서 상재됐다. "이오덕 글쓰기 교실" 총서(?)가 그것으로, 「신나는 글쓰기」「우리 모두 시를 써요」「와아, 쓸 거리도 많네」「이렇게 써 보세요」「어린이 시 이야기 열두 마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들은 어린이들이 실제로 쓴 다양한 글을 싣고, 그 뒤에 저자의 느낌을 부기하는 형식을 취한다. 저자의 '조언'은 어린이들에게 억지로 글을 지어내거나 흉내내어 쓰지 않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이 두어진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생활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한 이야기거리를 자연스럽고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는 점이 이 책들의 장점으로 꼽힌다.

「신나는 글쓰기」는, 머리말에 의하면, 글이란 어떤 특별한 취미나 재주를 가진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고, 글자만 알면 누구든지 쓸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책으로 「글쓰기, 이 좋은 공부」 "고침판"이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동시 쓰기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우리 모두 시를 써요」는 「어린이는 모두 시인이다」를 "아주 많이 고쳐서 내는 책"이다. "시를 쓰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저자는 머리말에서 말한다.

「와아, 쓸 거리도 많네」는 무엇을 쓸까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된다. 쓸 거리를 장만하는 일이 글쓰기 공부의 가장 근본이 된다고 한다. 좋은 글을 쓰려고 할 때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글쓰기의 중요한 문제와 방법을 제시한 「이렇게 써 보세요」는 「와아, 쓸 거리도 많네」와 "언니와 아우 같은 사이"라고 한다. "쓰고 싶은 이야기거리의 보따리를 잘 풀어 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 마지막 권인 「어린이 시 이야기 열두 마당」은 어린이들이 어른들 글을 흉내내지 말고 자신들의 글을 써야 한다는 주제 아래 어린이들의 "보기글"과 저자의 자상한 도움말이 어우러져 어린이들을 즐거운 시쓰기의 세계로 안내한다.

이 "이오덕 글쓰기 교실"은 그러므로 어린이들이 글을 짓는 과정에서 봉착하는 갖가지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나침반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산업사 / A5신 / 각 200면 내외 / 각 3500원 내외

만화로 풀어쓴 아동용 과학교양서

한길사刊 '최달수의 과학탐험' 전5권

최근의 신문이나 과학정보지에서 소개하는 첨단과학의 위력은 그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도 인간의 정신을 초라하게 느끼게 할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예들이 많다. 과학의 이기를 향유하면서 "과학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인간은 단지 과학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뿐인 것이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과학하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최근 한길사에서 펴낸 「최달수의 과학탐험」(전5권)은 어렵게만 생각해오던 과학의 본질을 만화로 전달하는 책이다. 만화라는 당의정 혹은 윤활유로써 과학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달콤하고 매끄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어린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지식의 전달보다는 "과학하는 마음, 과학하는 사고" 등 과학하는 생활의 체화에 역점을 둔 점이 주목을 끈다.

현재 프리랜스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중인 최달수씨가 글과 그림을 쓰고 그렸다.

이 '시리즈'는 저자가 「과학동아」에 연재했던 것들을 모은 것으로 「바이러스를 검거하라」「우연한 발견」「위대한 과학자들」「냉동인간 그 이후」「우주정거장에서 생긴 일」 등 5권으로 구성돼 있다.

그 첫째권 「바이러스를 검거하라」는 미생물의 출생, 바이러스의 정체, 비타민의 발견, 비타민에 얽힌 이야기, 속 들여다 보이는 위장, 물로 만들어진 세상, 누에알을 훔쳐낸 수도승, 담배 500년, 전염병과 면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권에는 사상 최초의 수소기구, 기적의 섬유 나일론, 보리밥과 비타민, 만병통치약에서 최고의 연료로, 우연히 발견된 색깔, 카메라의 탄생, 최초의 텔레비전, 지상의 왕자 탱크의 탄생,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기까지 등으로 구성된다.

「위대한 과학자들」에서는 다빈치, 플랭클린 등 9명의 과학자의 일대기가 그려지며, 「냉동인간의 그 후」에서는 미래의 인간과 인간생활의 모습이 펼쳐진다. 1백년 뒤에는 "기억영양제"가 생기고, "사람을 복제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 마지막 권에서는 "초전도 열차"와 "눈으로 조종하는 로봇" 등 과학의 힘으로 누리게 될 운명의 이기들을 다룬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 책을 펴내는 이유를 "이 땅의 어린이들이 과학의 길을 산책하면서 과학과 과학자가 지닌 높은 정신의 향기를 맡아 지구와 인류를 구하는 주역이 되기를 바라서"라고 적는다.

한길사 / B5 / 각 58면 내외 / 각 7000원

亞細亞文化社 漢文學教材案內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48-24
전화 : 279-8161~3,9266

李奎報詩文學研究
金慶洙 著 신국판 5,000원
本書는 著者의 博士學位論文으로 자신의 소신대로 『論을 펼치고 살았던 李奎報의 漢詩世界를 체계있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高麗漢詩와 神仙思想研究
李演載 著 신국판 7,500원
本書는 博士學位論文으로서 高麗時代(기원 918~1392)의 漢詩文學에 국한시켜 거기에 표출된 神仙思想의 주제적 전개양상과 仙詩語의 유형적 특징 및 仙的 表現의 연계적 특성을 고찰하고 있다.

韓國漢文小說史
車溶柱 著 신국판 8,500원
本書는 그간의 연구가 미흡했던 漢文小說史를 중심으로 하되 小說史 전체의 일환으로 그 발전과정을 추구해 봄으로써 우리 古小說의 발달과정 전반을 이해하고 체계화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資料를 통해 본
漢字·漢字語의 實態와 그 教育
李應百 著 신국판 16,000원
本書는 蘭臺 李應百 박사의 停年退任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간에 漢文教育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글들과 각종 교과서 및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漢字·漢字語를 조사 검토한 자료를 엮어 만든 책이다. 北韓의 교육한자 3,000자가 수록되어 있다.

圓鑑國師集(국역)
진성규 역 신국판 10,000원
本書에는 종래 「圓鑑錄」에 수록되지 않았던 書答·願文 등 8篇의 내용이 추가가 되어 圓鑑國師 冲止를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자료로서 주목되고 있다.

알기 쉽게 풀어 쓴
漢文解析의 지름길
李潤玉 著 신국판 7,500원
本書는 새로운 각도에서 현실적으로 초보자들도 쉽게 한문에 접하여 익힐 수 있도록 도표형식을 도입하여 풀이한 기초한문 입문서이다.

漢字教育論
安承德 著 신국판 15,000원
本書는 저자가 그간의 漢字教育에 관심을 가지고 발표하였던 글들을 모아, 「국어교과서와 한자교육」, 「한자지도」, 「한자사용실태」, 「일본의 한자사용실태」, 「語文정책의 변경」 등 5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韓國漢文學과 儒教文化
刊行委員會 編 신국판 29,000원
蒼谷 金世漢 교수의 停年退職紀念論叢으로서 제1·2부 28篇의 論文은 「韓國學의 理論과 批評」으로 韓國學研究의 諸分野(작가론, 작품론, 장르론 등)을 포괄한 韓國漢文學이며, 제3부 14篇의 論文은 「儒教文化와 退溪學」을 구체화시킨 글들로 수록되어 있다.